

태풍도 밀어낸 폭염...이번주가 절정

일요일까지 썬통더위

광주·전남 온열질환자 146명

주말 태풍 '레기마' 영향권

내주부터 한풀 꺾일 듯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를 밀어낸 광주·전남의 폭염과 열대야가 이번주만 버티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나주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 이번 주 주말까지 낮 최고기온이 33도 내외로 분포할 것"으로 예보했다.

7일 현재 흑산도·홍도(신안), 거문도·초도(여수) 등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광주·전남 지역에 주말과 일요일까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43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 6명이 숨졌다. 올해도 폭염이 오랫동안 강하게 지속함에 따라 폭염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광주·전남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총 146명(광주 26명·전남 120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170명(사망 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장소별로는 논·밭, 주택 등으로 주로 야외활동 중 발생했다. 발생 시간대별로는 낮 12~오후 3시가 가장 많았고, 오후 3~6시가 다음으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 소방본부는 온열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99대의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열음조끼, 열음팩 등 9종 1만 1978점의 폭염 구급장비를 비치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모든 소방서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하는 등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광주·전남에 맹위를 떨치는 불볕더위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방분간 주춤할 전망이다. 여기에 12일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의 기세를 한단계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일부터 일주일째 이어진 열대야도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유동적이지만 제9호 태풍 '레기마'의 영향으로 12~13일 사이 기압골에 의해 광주·전남에 비가 오면서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이후 방분간 폭염은 누그

러질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까지 폭염이 이어지지만 곳에 따라 대기 불안정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산간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전남에 최근 10년(2009~2018년) 동안 폭염일수·열대야 일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10년 평균 폭염일수는 10.4일, 열대야일수는 14.9일로 평년(폭염6.1일·열대야 8.9일)보다 4~6일 가량 증가했다.

광주·전남 평년(1981년~2010년) 8월 한달 폭염일수는 3.6일인데 반해 올해 8월은 아직 7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폭염일수가 3.1일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가을 오는 길목...주렁주렁 익어가는 조롱박 입추(立秋)를 하루 앞둔 7일 함평군 월야면 월야달맞이공원 조롱박 터널에서 관광객들이 여러가지 모양의 조롱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양림동 선교사 23인' 조형물·연대기 만든다

묘역 역사문화관광코스 개발

광주시 남구가 양림동 선교사 묘역을 역사문화관광 코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선교사 23인의 조형물과 연대기를 제작한다.

남구는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안장된 선교사 23인과 가족들을 조형하는 조형물과 연대기를 제작·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남구는 예산 2억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호남신학대 앞 동산에 위치한 선교사 묘역 주변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웬·유진벨·웨핑 선교사와 5·18 당시 광주학살을 증언한 현틀리 목사 등 묘역에 안장된 23인의 삶과 활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조형물 형태로 제작된다.

또 순례객과 관광객들이 양림동 선교사의 활약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별 연대기도 만든다. 개화기 선교활동부터 3·1 만세운동, 6·25전쟁, 5·18민주화운동 등 근현대사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선교사의 활약상이 그려질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검찰 '공안부' 현판 내주부터 '공공수사부'로

56년만에 역사 속으로

검찰 '공안부'가 오는 13일부터 '공공수사부'로 현판을 바꾼다. 과거 공안의 상징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사건 수사가 줄어들면서 '공안부'는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3일

부터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이름을 바꾼다.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공안'은 대공·테러 등 고유 영역에 한정해 사용한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뀌며, 앞으로 '공안사건'을 '공공수사사건'으로 부르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 뜨는 시각 05:46 달 뜨는 시각 13:27
해 지는 시각 19:30 달 지는 시각 --:--

입추

구름많고 내륙 곳곳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다.

광주	소나기	25/34	보성	구름많음	24/31
목포	구름많음	26/32	순천	구름많음	25/32
여수	구름많음	25/31	영광	소나기	24/34
나주	소나기	24/34	진도	구름많음	25/32
완도	구름많음	25/32	전주	소나기	25/33
구례	소나기	24/34	군산	소나기	25/32
강진	구름많음	25/32	남원	소나기	24/33
해남	구름많음	24/32	흑산도	흐림	24/29
장성	소나기	23/3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	동~남동	0.5~1.0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1.0~2.5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1.0~2.0	북동~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 생활지수

위험	☀
보통	☀
좋음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17	07:38
12:47	20:22	
여수	08:20	02:07
	21:13	15:14

◇ 주간 날씨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	☀	☀	☁	☀	☀	☀
26/34	25/34	25/31	25/30	24/31	23/31	23/31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유행성 눈병 주의보

광주에서 여름철 유행성 눈병 질환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행성 눈병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물놀이시설 이용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까지 급성출혈성결막염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유행성각결막염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지난 5월 35.3%(17건 중 6건), 6월 54.5%(22건 중 12건), 7월 53.3%(15건 중 8건)로 증가하고 있다.

유행성각결막염은 여름철 유행하는 대표적인 안과질환으로 잠복기는 5~14일이다. 감염되면 눈곱, 충혈과 함께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있고 눈부심과 눈꺼풀이 붓는 증상이 보인다. 일부이긴 하지만, 염증이 생기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기해영 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질환과장은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단 모집

광주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오는 15일까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광주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단을 2차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민들의 관심을 높고 계획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시민참여형으로 계획했다.

시민참여단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0대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번의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